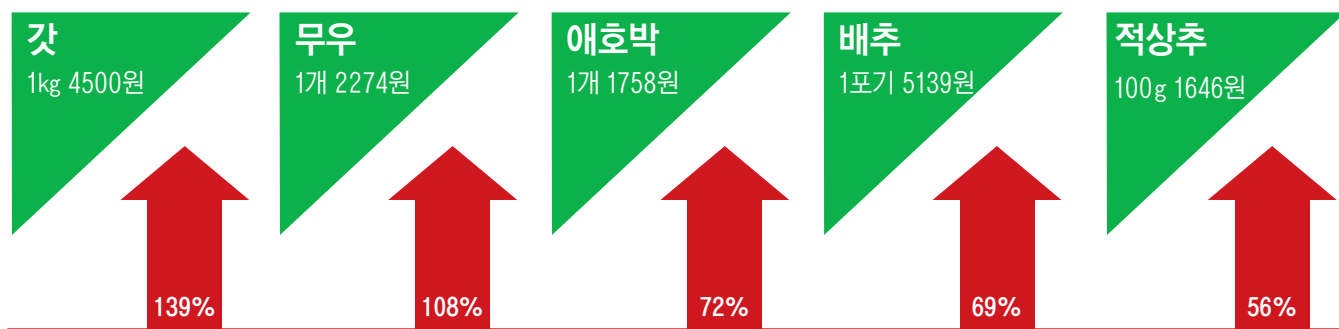


치솟는 채소값

폭염·폭우에 작황 저조
음식점 야채 제공 부담
서민 장바구니도 울상
정부 내달 물가대책 발표



지난 22일 찾아간 광주시 동구 황금동의 한 음식점. 대패삼겹살과 생삼겹살을 주문해 주며 판매하는 이곳 식당주인은 “매일 가게 문을 여는 것 자체가 두렵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상추와 쌈배추, 열무 등 푸짐한 쌈채소를 ‘무기’ 삼아 손님을 끌었지만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는 채소값 탓에 ‘영업위기’를 맞고 있어서다.

그는 “한달 20~30만원 들어가던 채소 구입비가 최근 90만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며 “상추를 더 달라는 손님들에겐 내색하진 못하지만 그때마다 속이 타들어 간다”고 토로했다.

가름과 폭염, 폭우까지 ये 여름 번덕스러운 날씨 탓에 상추와 배추 등 엽채류 외에도 양파와 오이 등 대다수 채소값이 고

공행을 이어가자 요식업계에서 “죽을 맛”이라는 말이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는 100g당 164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나 올랐다. 열무는 1kg 가격이 20.4% 오른 3466원에 거래되고, 깃은 1kg에 4500원으로 무려 138.7% 급등했다.

이처럼 엽채류 값이 지난 7월부터 약 두달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음식점에서는 “상추 대신 고기와 음료를 서비스로 내어주는 게 훨씬 낫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양파와 호박 등 대다수 채소들도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이나 량겨운 요식업계를 더 괴롭히고 있다.

양파는 상품 1kg 가격이 2028원으로 25.6% 올랐고, 애호박은 1개가 1758원으로 72.1%나 상승했다. 특히, 배추의 경우 한 포기 5139원으로 평년보다 69.4% 상승, 무우는 1개당 108.2% 치솟은 2274원으로 거래되면서 ‘김치’와 ‘깍두기’를 내주는 것도 부담스럽게 됐다.

실제 이날 점심 찾아간 상무지구의 한 식당에서는 배추김치 대신 도라지무침을 반찬으로 내었고, 식당가에서 상추겉절이와 오이무침 같은 반찬가짓수를 줄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치솟는 채소가격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폭염과 폭우로 상당수 채소가 피해를 입는데다, 비

까지 예보돼 있어 출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추 등 엽채류의 경우 비가 그친 뒤 생육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파종 후 한달은 지나야 판매가 이뤄진다. 배추도 다음달 중순 이후 주산지 강원도에서 출하가 시작된 뒤에나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채소값 등 생활물가가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도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제수용품 수급, 사재기·바가지 단속 등과 서민들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66.40 (+1.07)
- ↓ 금리 (국고채 3년) 1.80% (-0.01)
- ↓ 코스닥 643.71 (-0.55)
- ↓ 환율 (USD) 1131.80원 (-2.00)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혁신경영대상’

농가 경영안정 지원·농축산물 가격안정 등 공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에서 ‘혁신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영학회는 기존 경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창조적 경영으로 눈에 띄게 발전한 기업이나 기업인을 발굴·선정해 혁신경영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혁신적 활동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다.

김 회장은 ▲농협조직 변화와 혁신으로 재도의 기반 마련 ▲농가경영안정 지원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 추진 ▲농협협 건전 육성 등



공로를 인정 받았다.

김병원 회장은 “지속적으로 농협조직의 변화·혁신을 도모하겠다”며 “농업·농촌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가계빚 대책 내달 발표

금융감독당국은 상반기 말 현재 1388조 3000억원까지 불어난 가계빚과 관련, “증가속도가 전년보다 둔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돈을 더욱 강하게 죄는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가계부채 증가세는 예년보다는 줄었다”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영향도 나타나고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8월 말 내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8월까지 진행되는 데다, 8·2 부동산대책 관련 대출규제가 23일에서야 시행됐기 때문에 경과를 봐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9월 6~7일 한·러 정상회담과 9월 18~22일 유엔총회 등의 일정이 이어져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9월 11~15일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6월말 1388조3000억원(잠정치)으로 3월 말보다 2.1%인 29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9조 5000억원(속보치) 등을 감안하면 8월 하순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한전,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

조직위 내 전력공급 지원본부 가동...전기차 무상 지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3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전력그룹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의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조환익 사장과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후원협약 서명에 이어 참석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

공기원 다짐식을 가졌다.

한전은 ‘1등급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 후원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사용과 후원사 로고 노출 등 공식파트너에 해당하는 스폰서십 권리를 부여받았다. 한전은 대회 기간 회사 브랜드 홍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범세계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원과 별도로 한전은 올림픽 관련 전력설비 확충 및 최적운영을 위해 올림픽 지원조직을 운영중에 있으며, 전기

차 무상임대와 충전소 설치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내에 ‘올림픽 전력공급 지원본부’를 가동하여 전력설비 신규건설과 설비 보강으로 올림픽 경기장 전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150대를 무상 임대하고, 급속 충전시설 26개소 설치를 통해 클린올림픽 대회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환익 사장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범세계적인 지구촌 축제이자 국가적 행사에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보탬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듣기 편해진 ‘금강보청기’

무선 신제품 출시...전용 리모컨 탑재 난청인 고민 해결

전국 110개의 최대 네트워크를 보유한 (주)금강보청기는 최근 신제품 무선보청기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출시한 ‘MUSE Wireless i시리즈’는 TV청취기(SurfLink Media 2)와 무선보청기 전용 리모컨(SurfLink Remote)을 추가로 탑재, 난청인의 보청기 사용에 불편함을 덜어 줄 전망이다.

900MHz를 이용한 최적의 송수신 시스템과 다수의 보청기와 간섭없이 연결되어 여러명에게 TV 등 다양한 기기의 선명한 소리를 제공한다.

또 자동인식으로 추가설정에 대한 번



거로움과 다양한 방법의 볼륨 조절 기능으로 편리함을 극대화한 점도 장점이다.

새로운 무선보청기는 전국 금강보청기 센터에서 무료로 시연해 볼 수 있으며, 신제품 출시와 함께 할인행사도 진행 중이다. 문의 1588-5233.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휴가철 고속도로 車 5%가 핑크상태

금호타이어 휴게소서 타이어 안전점검·무상 수리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안전운행 캠페인을 진행하며 자체 조사한 결과 운행 차량 중 약 5% 차량의 타이어에 못 등이 박혀 핑크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여름에 화성·여주·군산·함안 휴게소 등에서 차량 총 2333대를 대상으로 타이어 안전점검을 하고 이 중 109대 차량의 타이어 핑크를 무상 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운

행 차량의 4.7%에 해당하는 수치로 화성휴게소의 경우 무려 6.7% 차량의 타이어가 핑크 난 상태였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들은 타이어가 핑크인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핑크는 주행 중 타이어 저공압 상태를 유발하고 과다한 열 발생에 의해 타이어의 층이 분리되거나 차량이 추저앉게 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대성기자bigkim@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

본 자연장은 아름기초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